

생활정보

분당 울동공원 15일 국화축제

생활 최근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울동공원에서 15일 국화축제가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주민노래자랑과 그림전시회, 글짓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명예퇴직금 세금환급키로

세금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작년 정례회고 등으로 회사를 물러나면서 퇴직금 이외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만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0월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화물차·버스 1차로 뚫린다

교통 빠르면 11월부터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의 1차로 통행이 다시 금지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권도 3차로 이하의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국내선 항공요금 큰폭 인상

교통 대한항공은 18일부터 현행 국내선 요금을 주중(월~목) 13.5%, 주말 19.8%, 성수기 25.6%씩 인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13일부터 국내선 항공료를 평균 16.7% 인상하고 주말·주중 요금을 차등화한다.

커피 하루 한잔 건강 억제

건강 일본 산교(産業)의과대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11년간 7259명을 조사한 결과 커피를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커피를 가끔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70%라고 밝혔다.

태양전지 휴대용 충전기 개발

신상품 태양빛으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휴대용 충전기가 개발됐다. 개발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대체에너지 연구부 이만근박사팀.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전원장치인 이 휴대용 충전기는 일조량이 좋을 때 4시간정도 태양빛을 쬐면 완전히 충전된다. 반영구적이고 산속이나 계곡 등 전원이 없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출시예정

“더불어 살아야 할 지구촌”

서울 NGO대회·강원 관광엑스포등 잇달아

이젠 서로 남이랄 것도 없는 지구촌 시대. 더욱이 동양사상이 서양에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요즘, 세계를 하나로 잇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거나,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들 '지구촌 축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한 자리에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오늘'을 가능해보기에 충분하다.

▲ 99서울 세계NGO대회=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전세계 3백여 NGO단체 및 국내 시민단체, 일반참가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서울 올림픽공원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술 프로그램과 토론회가 진행될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 지금까지 국내 7개 단체와 해외의 단체 43개 단체가 대회기간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해 높은 상태. 이와 함께 동북아 민속예술제, 태극 필리핀 민속공연 등 주최측이 마련한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난달 11일

시작돼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와 200여 관련기업이 참여하며, 관람객만도 3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에 마련된 전시관은 모두 18개로, 세계 각국의 관광현황을 소개하는 국제관만도 4개이며, 환동해권, 아시아, 미주·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각국별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최첨단 영상과 전시조형물로 보여준다. 지난해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이어 관광한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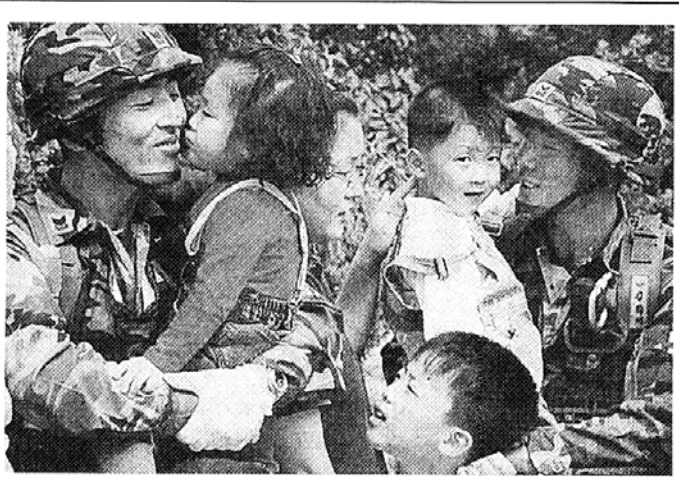
▲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지난달 21일부터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에서 시작됐으며 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환경, 그 생명시대의 개막'이란 주제로 10만여명의 세계 환경인들과 150여명의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한다. 주제관, 미래환경생활관, 첨단기술관, 환경사업관, 환경과학교육관, 환경농업관, 환경재활용관 등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환경생태과

크, 국제환경영화페스티벌 및 의상패션쇼, 희귀조류전, 환경해양전시전 등의 볼거리 위주 이벤트도 펼쳐진다.

▲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지난달 30일 개막돼 이달말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조화의 손-미래에서 날아온 화살'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250명의 국내외 초대작가 작품전과 분야별 공예품 전시회 등을 통해 각국 1만5천여점의 공예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 혼례식, 거리 퍼포먼스와 공예 워크숍, 거리 퍼레이드 및 야외 영화제,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안동시내 낙동강 주공연장과 하회마을 일원에서 계속된다. 안동민속축제의 병행해 열리는 올해 축제는 국내탈춤 중요무형문화재 14개팀과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모두 7개국에서 22개 단체가 참가해 탈춤과 민속놀이, 예술행사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펼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티모르 가는 상록수부대 "아빠, 인병히 다녀오세요" 동티모르에 파견될 상록수부대 선발대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특전사 육류부대에서 신고식을 마친 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일본근해 지진 발생후 90분만에 한반도 해일

빈번한 지진을 겪고 있는 일본. 일본 근해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지진해일 재해경감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 안희수 교수는 일본 연안 7개 해저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90~120분만에 동해안 일대에 해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함으로써 해일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일본 지진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83년 아키타지진(리히터 규모 7.7)때 한반도에서는 해일로 3명이 사망하고 8억여원(당시 금액)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노령층 실업자 5년새 9배 증가

50대도 7배 증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50, 60대의 장년층과 노령층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실업자수는 94년에 5000명에서 96년에는 7000명으로 늘어난 뒤 97년 1만5000명, 98년 4만7000명으로 5년만에 9배이상 증가했다. 또 50대 장년층의 실업자수도 94년 2만3000명에서 95년 2만8000명, 97년에 4만명, 98년에 16만2000명으로 5년전에 비해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중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실업자수가 49만명에서 146만1000명으로 2.9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장년층과 노령층의 실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는 60대 이상 남자 실업자가 94

년 4000명에서 98년 3만6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는 1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가. 여성의 실업률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60세 이상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도 90년 128만2000명에서 98년 194만7000명으로 51.9%가 늘어 이 기간의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 42.2%에 비해 높았다. 통계청은 공공근로사업 등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령층의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우 기자



박승원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부패한 사회구조 결국 IMF체제 맞이한 이유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직업별 부패지수를 보면 정치인, 세무공무원, 경찰 등이 가장 높으며, 목사와 스님 등 성직자의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누구든 부패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청렴하다고 인정된 계층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부패해 질 소지를 안고 있다. 부패의 원인을 찾자면 우선 각종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면 농지법

에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르기까지 15개 법 24개 조항과 공장건축허가에 4개 법 15개 조항을 통과해야만 했다. 최근들어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권위적 통치속에 있다. 게다가 영장수 맘과 같은 인허가권자의 주관적 판단도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을 '장애물경주'에 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도 낫다.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부터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에 들어먹으려는 곳이 수십군데이다. 관할 시군구청, 경찰서, 세무서, 환경부, 노동부, 국 가보훈처, 집권여당, 각종사회단체 등이 별때처럼 달려든다. 어쨌든 정치인, 공무원 할 것없이 물어먹는 것을 너무도 좋아한다. 말 그대로 public servant, 공노비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긴 조선중기에 노비의 숫자가 전국민의 절반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조상들이 경험한 노비의식이 잠재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의 원인을 모두 정치인이나 공무원만 돌릴 수는 없다. 각종 규제와 권위적인 관료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는 국민의식도 문제이다. 즉

법을 지키기 보다는 뇌물을 이용해 쉽게 해결하려는 풍토가 그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적당히 바치고 또 적당히 해먹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비교적 사회의 공정성이 잘 확립된 나라들이다. 또한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내리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부패한 나라들이다. 부패의 문제는 단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 나라의 부패지수는 96년말 27위에서 97년 34위, 98년에는 43위로 후퇴하고 있다. TI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란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현지 기업인 등의 인식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이처럼 부패한 국가로 낙인이 찍힌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부패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활동을 미치지 못한다. 부패에 찌든 국가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부실이 만연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은 다른 국가의 부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력, 세무서, 환경부, 노동부, 국 가보훈처, 집권여당, 각종사회단체 등이 별때처럼 달려든다. 어쨌든 정치인, 공무원 할 것없이 물어먹는 것을 너무도 좋아한다. 말 그대로 public servant, 공노비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긴 조선중기에 노비의 숫자가 전국민의 절반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조상들이 경험한 노비의식이 잠재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의 원인을 모두 정치인이나 공무원만 돌릴 수는 없다. 각종 규제와 권위적인 관료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는 국민의식도 문제이다. 즉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일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
 ◎ 후원회 ARS : (02)700-0108